

— : 실전 푼이 중 표시

— : 정답의 근거 문장

— : 사고과정 표시

■ : 핵심 포인트, Tip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1

제 1 교시

국어 영역

작성자: 하상욱 / 송석훈

\* **총평**: 전체적으로 난해했던 시험.

독서의 경우, **지문의 빈부분을 생각의 끝이나 배후** 있는지.

문학의 경우, <보기>와 **문학적 개념** 간 연결이 main point.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 **A**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우> 어휘력이 부족하면/읽는 양도 적어지고/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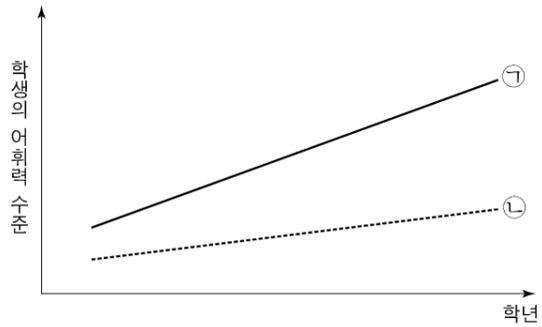
#1 근거

#2 근거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비로 1:1 매튜 효과로서 (보통 국어)



- ㉠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격차는 계속 커질.
  - ㉢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의 차이 때문이다.
  - ㉤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 ∴ 어휘력 ↑<sup>1)</sup> - 읽기량 ↑<sup>2)</sup> - 어휘력 ↑<sup>3)</sup> - 읽기량 ↑<sup>4)</sup> <비율>

3. <보기>의 관점에서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4

#3 근거

<보 기>

Key: 상호작용.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 <보기> 문제 해법

- ① 현. <보기>의 핵심 point. (여기서 cut)
- ② 지문과 일치 여부.
- ③ 지문 ... <보기>의 연결고리

1.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① 읽기 요소의 good → 읽기 기능의 발달 견인

☆ 조금 조잔할 수도 있지만, **고난도 화자**와 다를 바 x

「세부정보」도 명확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

[동일 주제, 다른 소재(관점)]

역사 지식과 학문



2

국어 영역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증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 시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려야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 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 (가)는 ~~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 4번 문제에서, 앞으로 (가)나 지문 유형에 대한 해법

동일 주제 TOPIC



여기에 주목!

[지식·학문] 진 → 학

유교+현실 유교 → 도가, 법가

#8-2번



#12 Comment.  
: 여기서 ㉠과 ㉡ 모두 비타민 K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다시 말해, 비단 ㉠, ㉡이 언급되기 시작한 3문단이 아니라,  
1~2문단 전반의 내용이 두 대상의 공통점이 된다.  
의식적으로 공통점을 찾자 애썼다면 Best.

# 국어 영역

#10-①  
#10-②  
#10-③  
[PBR → 섬유소 + 혈소판 → 혈병]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핵심 주제의 정의.**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sub>1</sub>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sub>2</sub>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sub>1</sub>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sub>1</sub>과 K<sub>2</sub>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sub>1</sub>은 간세포에서, K<sub>2</sub>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sub>1</sub>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sub>2</sub>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sub>1</sub>과 K<sub>2</sub>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sub>2</sub>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일반  
혈관속  
#12-②  
정보량 폭탄  
① 도사화, 정리  
② 눈알크리기  
↓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 덩어리 쉬면서  
글을 읽자.

한편 그러나, 반면에 ... etc  
→ 선지 근거 문장  
or  
→ 핵심 문장

공  
차

#12-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0-④  
#10-⑤  
혈액 내 농도 ↑ but 뼈 조직 내 same → 혈관 석회화 Δ

11. 칼슘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sub>1</sub>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보충제 → 석회화 → MGP by Vit K<sub>1</sub> : 효용성 증가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혈관 석회화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나경화 인자 x, 칼슘 인자.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혈액은 잘 흡수됨.)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되게 않는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지방 → 비타민 K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비타민 K가 표단 활성화)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합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은 섭취량 증가 권고 = 일반적인 결합
- \* ㉠, ㉡ ... 등 문제에서 변화된 대상들은 무조건 공통점 / 차이점 정리하기 → ㉠, ㉡  
공: 비타민 K  
차: 활성화 대상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주제가 혈액응고 - 거기에 맞춰서 <보기>의 말을 변형하자. - 지문의 상황과 유사? /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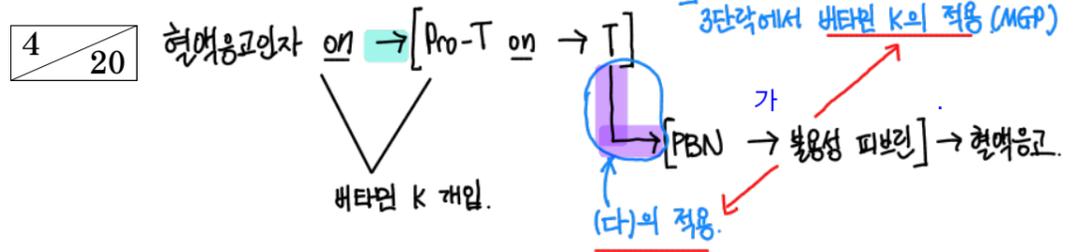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 트롬빈 양 ↓ = 혈액 응고 ↓ / MGP ↓ = 석회화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 피브린 ↓ = 혈액 응고 ↓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피브린 ↓ = 혈액 응고 ↓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 하겠군. X (연관성 없는 얘기)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 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 하겠군. ○



<지문 Comment>  
 : 단(短) 지문 유형이다. 점유개정, 행정유제, 여약, PCR, 배제법...  
 최근 과년도 지문은 정보량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양으로 승부를 본다.  
 정보의 밀도가 높은 경우가 대세였지만, 본 지문을 통해 '정보가 생략된' 형태에도 익숙해지자.  
 결국, 두 유형 모두 중요 의의에서 독자가 정답을 더하고, 승점적으로 독해능력이 관련된 것.

<지문 Comment -2>  
 일반적인 경제 제재는 아니다.  
 ⊕ E비슈팅이나 미시건전성 지문을 떠올려보자.  
 대부분 수식, 그래프가 만연하다. 하지만 본 지문은 그렇지 않는데 과학적인 경제보다, 인문스럽게 가해진 경제지문이라는 말이다.  
 인과와 추론이 그 이보다 중요하다 잊지 말자.



# 국어 영역

5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없을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14-②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다면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①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②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③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④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⑤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시행G ↔ 비교G  
 ○ 사건  
 ×

임금이 독립변수로서 일어나 잘가?  
 ○ 사건  
 ×

사건 = Δ사행 - Δ비교  
 Δ값 = 사건 + 비사건  
 ∴ Δ사행 = Δ사건 + Δ비사건  
 Δ비교 = Δ사건 + Δ비사건  
 ∴ Δ사행 - Δ비교 = Δ사건 - Δ비사건  
 ∴ Δ값 = Δ사건 - Δ비사건  
 ∴ Δ값 = Δ사건 - Δ비사건

"정보가 비어있다"  
 문장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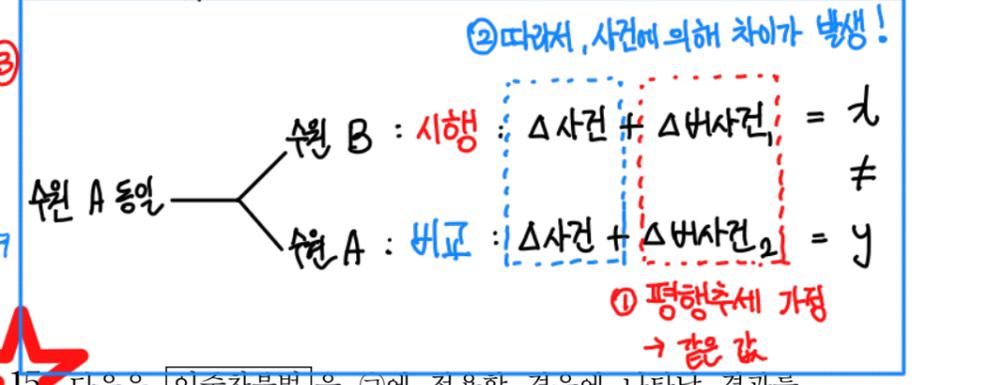
잠깐 멈추고 왜! 라고 생각

#16-④

#16-②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전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원, 인공 ... → 모두 사람이 표본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평행추세 가정만 X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평행추세 가정.

\* ④ 지문의 근거: '평균적으로 같다'는 말 = 어느 시점에서는 차이 있음  
 \* ④ 해설: (사건 후) - (사건 전) = 사건의 결과  
 = Δ사 + Δ비사<sub>1</sub> - Δ비사<sub>2</sub> = Δ사 + (Δ비사<sub>1</sub> - Δ비사<sub>2</sub>)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①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5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①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더 크게 감소

	A	B
①	작을	작을
②	작을	작을
③	같을	작을
④	작을	작을
⑤	작을	작을

Δ사건 = 고용증가율과  
 Δ비사건 =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  
 but 알자리↓의 비중: 시행 > 비교

[A] 프로그램 X - { 시행 = Δ비사 (알자리↓↓) = 감소폭↑  
 비교 = Δ비사 (알자리↓)

5 20 B 평행추세 = ①보다 시행의 감소↓, 비교는 ③가 ∴ Δ사건의 크기는 ①보다 큼.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①	22.3	20.2	-2.1
Q주 식당 ②	23.3	21.2	-2.1

변화가 안 나타났을 시행집단은 맞음 X  
 ⇒ 틀린 사고!  
 시행집단의 정답은 '사건 경험한 집단' = P주 저임금 식당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1.3 - (-2.1) = 3.4$  (○)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같은 시행집단에서 다른 시기를 조사  
 = 평행추세가정의 신뢰도 보장 X  
 (∴ 시차에 민감한 '고용'의 경우, 동시발생이 더 중요)  
 "보기의 흐름"

동의를 바꿔보기!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2
- ①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실렸다. X
  - ②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
  - ③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X
  - ④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X
  - ⑤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였다. X

★ 오답률 1위, 14번 상세 해설 ★

14번 문제는 현재 정답률 11%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BS 기준)  
 정답인 ①번의 퍼센트는 11%  
 매력적인 ④번의 퍼센트는 31% ...  
 이번 6평에서 평가원은 14번을 통해 한 가지를 예고한 거예요!  
 그 지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현장 / 해설 모두 준비하십시오 :)

확실한 답이 보이면, 그것을 적고, 다른 선지만 보지 않는 행위 그 과감함의 기준: "손가락질 하나 할 수 있나?"

\* 현장에서 14번을 대하는 태도  
 A) 우선 손가락질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②~④ 번 선지가 매력적인 답인 것을 떠나서, ①번은 명확히 틀린 선지니까.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한다는 것을 지문 내내 말했는데, ①번에서는 '한 개의 시행집단' 이라 했으니까!

B) 윗글에 대한 이해 ~ 문제는 결국 "지문과 1:1 대응" 의 문제예요.  
 혹시나 손가락질기를 못했어도, ②, ③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문과 왔다갔다하며 풀어도 됩니다.

C) 실전에서 ④번 선지 = 솔직히 개소리예요. 원 말이지 썬 집니다. 이런 선지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의 태도도 단 한 가지예요. "아, 개가 짖는구나...ㅎ"  
 라고 생각하고, 포석을 남긴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에 팔매여 소탐대실하지 말자는 거죠 ^^

\* 14번 문제가 시사하는 바. = [선지의 글서술어] [선지가 없는 보기]

14번 문제 선지 ①.②.③ 과 ④.⑤는 상어한 구조  
 ↳ 말치 (북악치) : ↳ 상황 혹은 시제 <보기>  
 = 서술어 -한다, -이다 : = 서술어 -일 수도 있다.  
 ↳ 일반적인 기술의 문제 : ↳ -일 것이다.  
 ↳ 예전에 <보기>에서 요구했던 것 : ↳ 20210937, 202106기처럼.

∴ KPI 지문의 상황과 유사 / 반대  
 → 이것부터 판단 후, 일치 여부.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백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백하는 P주 고임금 식당들로 백하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 ②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 ③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 ④ ㉣: 회원들이 회칙 계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⑤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자 뛰어나움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음이 풀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이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말,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항부하되,  
 "①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나 석파 웃더라.  
 여씨와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 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벽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섰더라.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말,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말,  
 "②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쾌당하며 말,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몸이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는 것은 급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띄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늘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종이란 자가 지주로서 한 무제와 여 매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뒤 능히 살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있었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입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열어 보니, 그 글에 풀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왕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흠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말,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금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문제가 안기야. 잘못했지?

# 국어 영역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꽃겨울 후, 첫째 부인(화씨)을 모함 하려고 여씨(여의개)를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두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집안 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김 몸이 달리 되랴? 내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악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길짐로 들이붓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쩔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포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마셔 물어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뵈던 일들을 낱알야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여셋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작자 미상, 「소현성록」-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치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비부러 외미!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모 모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확장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극적인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최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상'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끝'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확장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셋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자담하거든, 지름네  
 한상자의  
 전려사  
 모두 나온다.  
 첫인에서  
 끝까지!  
 가장 판단이  
 후심 바르고  
 지름이냐도  
 좋으거야!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by. 난기 → 전원 속에서 사는 거 맞네~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를 잡고 아이는 발을 가니  
 뒷 뒀에 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이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뻗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려고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대변  
 뒀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이 없다  
 의로운 배에 샷갓 쓴저 늙은이 → by. 난기 이 인물이 재주와  
 뉘대에 맛이 깊도다 난 길은 줄 아는가  
 - 황희, 「사신가」

(나) by. 난기 → 농민들은 가난이더.  
 건군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달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친 술기 원두(怨淚)는 피 피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소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어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 운명론자 태도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할습 타신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선곡(線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귀의 뉘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꾀눈물 몰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의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뜨르 똑뜨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예나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도망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부정적 생활양식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러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해졌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슬쓸해졌다.  
 우리는 오늘 밤도 슬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송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by. 난기  
장사를  
투정  
대응이더  
심시간  
해도 좋아!

공정!  
부정!  
생활양식  
by. 난기  
시간의  
집이였어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3.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5.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약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늑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꾸'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면 (가)~(다)를 가장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버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공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을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이런게는 잘 봐! 가꾸새 가.나.다 전부 읽어도 (가)는 (나)를 이라고 해서 (나)만 설명할 경우도 있어.

백퍼 이 내용이 자음이 나오겠다! 이이 작품 줄거리 전부 아네

이건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출판사가 쓴 거야.  
10 중요하겠지? 읽자.

# 국어 영역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제복 먼저 왔니, 여가 비스타 안 왔지?”  
“아니, 미스타도 안 왔지.”

듣고 올라온 각복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붓을 뜬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별책 내면서 장서 캐치, 신지에 뽕이 나리!”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다에다 뺄 내던진다.

“내가 알우?” → 비스타가 방삼복 캐치.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단 내거 먹을 데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할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 갈구 방삼복이 위미야태!

“정중으루 가져와요?” → 정중은 때사 방삼.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늙이 살아나구, 살 늙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중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었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2)의 설명을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우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개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A] 이

[B] 이

[C] 이

[D] 이

[E] 이

[F] 이

[G] 이

[H] 이

[I] 이

[J] 이

물건 하나 없이 깎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질만이나 뽕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천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허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 장면 전환.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중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스로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뺨뺨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받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뿔뿔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전네,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잡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허 뜨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열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기둥이나, 초상집 개처럼 흉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러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언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 태도

보야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찰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미군 현병.

인물은 반드시 체크해.

인물의 태도, 장서는 가장 중요해. 태도가 드러나네.

심사관 시도어본 수도 있어.

이제 안습해지지.

심사관 해도 좋아한다.

이제 무슨 일이든. 후신타 유익해.

# 국어 영역

실시간으로 풀지, 다 읽고 한 번에 풀지  
먼저 문제 풀이여 파악하자!  
11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다.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맨발 가자  
수수려거리는 수수발 사이 걸쩍스런 웃음들 흘러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이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봉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실레 닢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빠지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를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복음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함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심성한 마늘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나)

이사는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같이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켠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점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렸다

- 기형도, 「전분기」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몰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가 문항은 (번) 부터 (번) 까지 나온 것들을 지문에서 찾아서 주어야 하고, (번) 에 대한 문제는 (번) 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풀다. (시. 소사도 모두!)

나 문항에 정답은 없지. 그렇기에 정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읽어줘 '나는 취직의 글을 써줘. 그게 바로 (번) 야. 꼭 먼저 번이부터 읽고 지문 주해 시작하자.

다 문항은 문제 푸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 (시. 소사도 모두!) 우선 문제를 훑으며, [A], [B] ... 가 있는 경우, 실시간 풀이를 구사해볼 수 있지, 나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하자면, 실시간 풀이가 더 빨라서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경험을 통해 어떤 식으로 풀 지 판단하는 그 순발력을 갖춰야 해.

라 특히 (시) 에서는 긍정시어, 부정시어를 반드시 O, Δ로 체크하자. 심지어 같은 시어 유무해. 이것도 소사도 경험을 통해 느끼길 바라. 예를 들자면, 내가 지문에 Δ 표시한 시어는 정지에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맞을 거지. 희망찬 건 O 오히려, 시어는 Δ 였기 때문이야. 나는 미친 O, Δ 맞추기 나온 분러.

마지막으로, (소사) 에서 장서, 태도가 노출된 경우 반드시 체크해줘. (장서 장서 중독해. 심지어 자주 나와)

나 (소사) 에서는 장면이 자주 바뀌어, 장면이만, 시공간을 의미해. 그러니까, 시공간은 / 매경이 바뀌는 게 장면 전환이야. 장면이 바뀌면, 대체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거나, (소사) 등으로 장면 전환된 걸 잘 체크해두자. (이때, 각 장서, 장서 등으로 장면 전환을 알려주기도 해.)

다 (소사) 에서는, 인물 잡는 것도 중요해. 특히, 고전 산문에선 동물 인물은 거의 항상으로 부르곤 해. 예를 들어 황제님을 원수 따르도 할 것처럼. 잘 면담해서 그게 이 인물이란 잡는 건 이해하기 중요해.

나 (소사) 에서, 작위는 혼치 않아. ~같이, ~처럼 등 작위 붙이면 리해해두자!

다 고전 산문의 경우, 서술자 개입이 꽤나 빈번한데, 이런 지문 위에서 잡아두지 않으면 마치 평탄시 시간 연가 상당히 수 있어. 미리 지문 위에서 체크해두자. 서술자 개입은 주로 서술법 으로 구분돼. ex. ~하리오.

나 (소사) 에서 묘사 중요해. 배경 묘사, 외양 묘사, 행동 묘사가 있어. 묘사란, 어떤 모습을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의미해. 수능 기출에서 「조물전」을 보면, 배경 묘사가 주르르 있는데, 이게 선지화됐어. 또한 「장끼전」에서도 외양 묘사가 나왔는데, 이게 선지화됐고!

마지막으로, 문항 개념 이 잘 공부해줘!!! 이런 너무 기분이지 ~.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늘 [국빡]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빡’이 아니라 ‘빡’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빡]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ㅂ’ 또는 ‘ㅃ’으로 바꾸어 [버쓰]나 [빠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뫼[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밥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            |          |
|----------|------------|----------|
| ㉠ 앞일[암닐] | ㉡ 장미꽃[장미꼴] | ㉢ 냥고[너코] |
| ㉣ 걱정[걱쩍] | ㉤ 굳이[구지]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송-’,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씨’,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송고 부터씨 禮數<sup>ᄃᆞ</sup>ᄃᆞ습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sup>ᄃᆞ</sup>ᄃᆞ절 올리고]

-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져 ᄃᆞ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sup>ᄃᆞ</sup>게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송노니 [내가 이제 세존<sup>ᄃᆞ</sup>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쭈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씨’와 동사 ‘송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쭈’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X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 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꼭,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〇〇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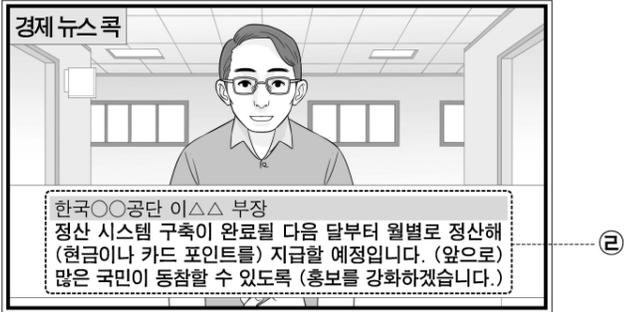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〇〇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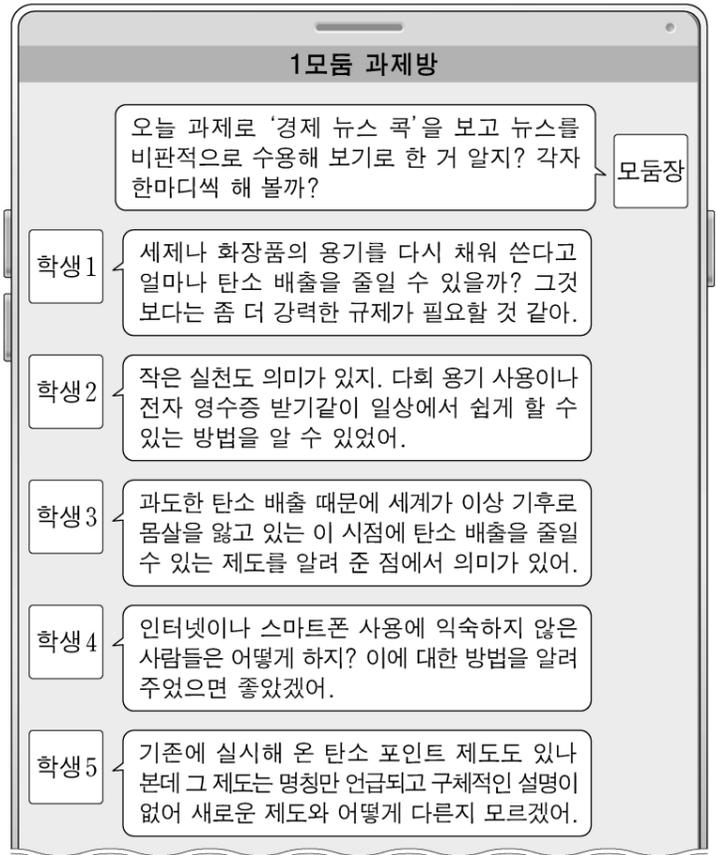


(나)



4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㉒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㉓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㉔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㉔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㉕~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㉖: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㉗: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㉕: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㉗: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4~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A]**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햇살가득:**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B]**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들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꼼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C]** 물론이죠, 꼼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D]**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E]**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꼼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